

PyeongChang 2018™ 국가별 메달순위				
21일 현재	금	은	동	합계
1 노르웨이	13	11	9	33
2 독일	12	7	5	24
3 캐나다	9	5	7	21
4 네덜란드	6	6	4	16
5 미국	6	4	6	16
6 프랑스	5	4	5	14
7 스웨덴	4	4	0	8
8 대한민국	4	3	2	9
9 오스트리아	4	2	4	10
10 일본	3	5	3	11

오늘의 평창 (22일)				
	● 쇼트트랙 남자 500m 준준결승~결승 서이라, 임효준, 황대현 (오후 7시 · 강릉아이스아레나)			
	● 쇼트트랙 여자 1000m 준준결승~결승 김아랑, 심석희, 최민정 (오후 7시14분 · 강릉아이스아레나)			
	●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 박윤기 등 5명 (오후 9시 · 강릉아이스아레나)			
	● 알파인스키 남자 회전 정동현 (오전 10시 · 용평알파인경기장)			
	● 바이애슬론 여자 계주 4X6km 고은정 등 5명 (오후 8시15분 · 알펜시아바이애슬론센터)			

최다빈 '무결점 연기' 또 개인 최고점 찍다

67.77점...팀 이벤트 기록 깨며 쇼트 8위



최다빈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간판스타 최다빈(18·수리고)이 무결점의 연기를 선보이며 쇼트프로그램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 최다빈은 21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7.54점과 예술점수(PCS) 30.23점을 더한 67.77점을 받아 참가 선수 30명 가운데 8위에 이름을 올렸다. 24위까지 주어지는 프리스케이팅 출전권도 여유 있게 손에 넣었다. 8위라는 순위도 의미가 크지만, 대회를 거듭하며 연달아 개인 최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 특히 반갑다.

최다빈은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팀 이벤트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TES 37.16점과 PES 28.57점을 더한 65.73점을 받으며 종전 개인 최고점(62.66점)을 경신한 바 있다. 본역 올림픽 데뷔전인 21일 개인전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향후 전망을 더 밝게 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있다.

이날 최다빈은 1983년 개봉한 영화 '엔틀'의 OST에 수록된 가수 '파파 캔 유 히어 미(Papa can you hear me)'에 맞춰 클린 연기를 선보였다. 첫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보를 깔끔하게 소화했고, 이후 트리플 플립과 더블 악셀 등의 나머지 점프 과제도 문제없이 마쳤다.

플라잉 카멜 스핀 등 화려한 회전을 선보일 때는 관중석에서 큰 환성이 터졌다. 마지막 과제인 레이백 스핀을 끝으로 연기를 마친 최다빈은 활짝 웃으며 '키스 앤 크라이 존'으로 향했다. 착지 실수나 회전수 부족 등의 실수가 없는 무결점 연기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것이다. 최다빈은 경기 후 "마지막 그룹에서 연기를 펼치게 돼 다소 부담이 있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훈련한 덕분에 개인 최고점을 받은 것 같다.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함께 출전한 김하늘(16·평촌중)도 TES 29.41점과 PCS 24.92점을 더한 54.33점을 받아 전체 21위로 프리스케이팅 출전권을 따냈다.

한편 쇼트프로그램 1위는 TES 45.30점과 PCS 37.62점을 더한 82.92점을 획득한 러시아 출신 알리나 자기토크(OAR)의 몫이었다. 메달을 놓고 겨루는 프리스케이팅은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강릉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박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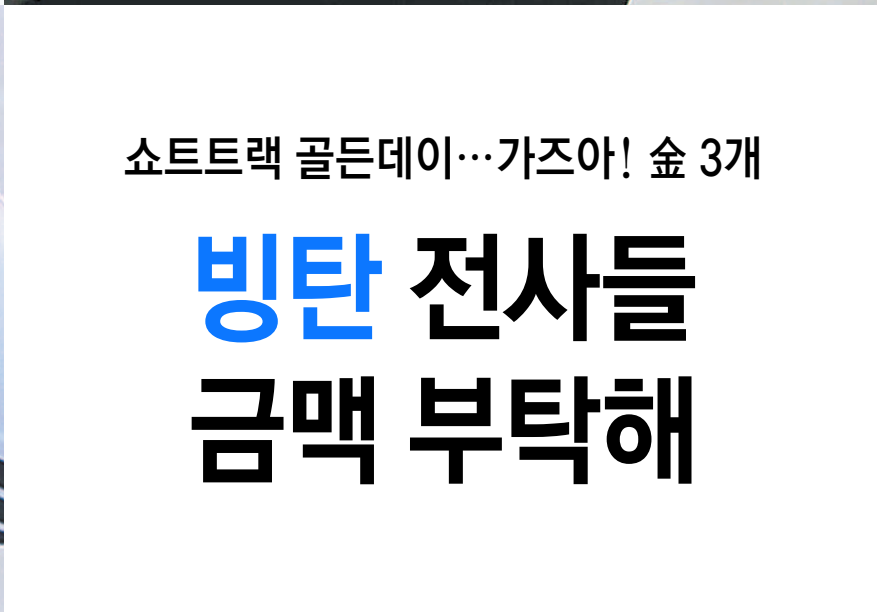
임효준



임도겸



황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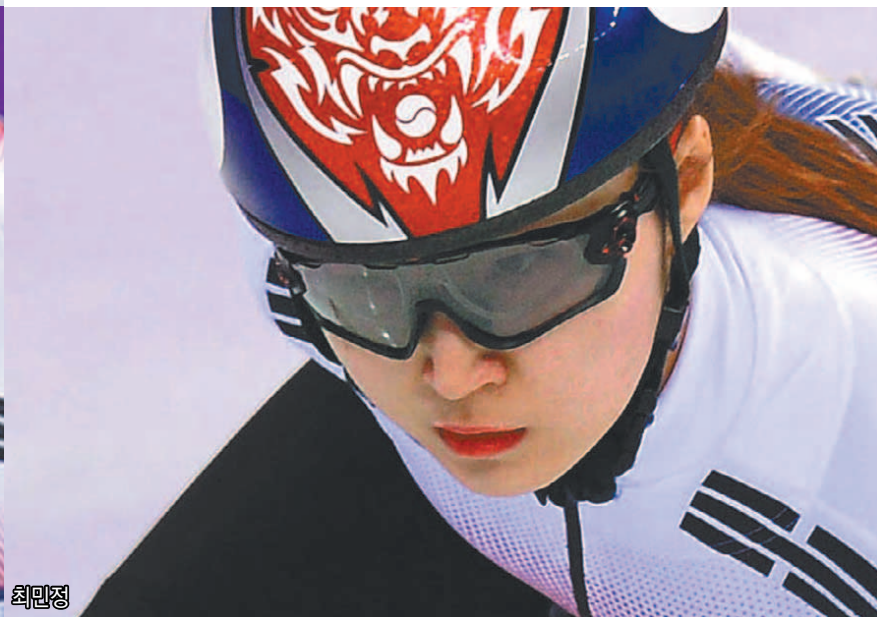
김아랑



서이라



김아랑



최민정



심석희

쇼트트랙 올림픽서만 금메달 24개 양공 23개 넘고 최고 효자종목 등극 오늘 남 500m·남 계주·여 1000m 박윤기 "계주 금메달로 대미 장식"



운명의 날이 밝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하이라이트인 대한민국의 '골든 데이'가 마침내 찾아왔다. 주인공은 쇼트트랙국가대표들이다.

쇼트트랙은 동계올림픽 최고 효자종목이다.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2년 알베르빌대회를 시작으로 2014년 소치대회에 이르기까지 무려 21개의 금메달을 캐냈다. '금메달 발'으로 불리는 세계 최강 한국 쇼트트랙의 힘은 평창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한국선수단 첫 금

메달의 주인공이었던 남자 1000m 임효준(22·한국체대)을 비롯해 여자 1500m 최민정(20·성남시청)과 여자 3000m 계주 대표팀까지 벌써 3번이나 정상에 서며 통산 금메달 수를 24개로 늘렸다. 동·하계대회를 통틀어 양궁이 보유했던 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23개)도 이번에 넘어섰다. 이제 하이라이트만 남았다. 한국 쇼트트랙은 22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다시 금빛 질주를 펼친다. 이날 결린 금메달만 무려 3개. 공교롭게도 남녀 모두 치열한 집안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 '집안싸움' 예상되는 남녀 개인전

선봉장은 남자 500m 3총사가 맞는다. 서이라(26·화성시청)-임효준-황대현(19·부흥고)의 삼자판대는 일찌감치 예열을 마치고 골든데이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20일 벌어진 예선에서 모두 조 1위를 차지하며 가볍게 준

준결승에 올랐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한국 쇼트트랙이지만, 사실 남자 500m에서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해왔다. 그동안 배출한 메달리스트도 1994년 릴레함메르대회 채지훈(44·금메달), 2006년 토리노대회 안현수(33·동메달·현 러시아), 2010년 밴쿠버대회 성시백(31·은메달)뿐이다. 후배들은 이제 24년만의 왕좌 탈환에 도전한다.

여자 1000m 역시 조정이 심상치 않다. 심석희(21·한국체대)-최민정-김아랑(22·고양시청)은 남자 500m와 마찬가지로 20일 펼쳐졌던 예선에서 모두 조 1위를 기록했다. 같은 날 3000m 계주 금메달까지 합작한 터라 분위기는 더 쏠쏠하다. 세 명 가운데 1000m 우승자가 나올 경우 최민정은 대회 3관왕, 심석희와 김아랑은 2관왕이 된다.

● '대미' 장식할 남자 5000m 계주

스에서 출발하게 돼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

임효준은 샤오양 리우(헝가리), 딜런 후거베르프, 단 브뤼스마(이상 네덜란드), 아브잘 아즈갈리예프(카자흐스탄)와 함께 4조에서 레이스를 펼친다. 이번이 없는 한 리우와 함께 준결승 진출이 유력한 최상의 조편성이다.

● 여자 1000m : 험난한 김아랑, 여류 넘치는 최민정·심석희

여자 김아랑(23), 심석희(21·이상 한국체대), 최민정(20·연세대)도 모두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하며 준준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1조에 편성된 김아랑은 험난한 행보가 예상된다. 마리안 생젤라, 킴 부랭(이상 캐나다), 베로니크 피에론(프랑스), 비앙카 발터(독일)와 함께 레이스를 펼치는데, 피지컬이 좋고 팀플레이에 능한 생젤라, 부랭과 함께 뛰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다. 피에론과 발터의 기량이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면, 김아랑과 생젤라, 부랭의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3조에 편성된 최민정은 다소 여유가 있다. 최

남녀 개인전이 모두 끝나면 남자 5000m 계주가 화려한 대미를 장식한다. 남자 5000m 계주는 그동안 여자 3000m 계주에 밀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여자대표팀이 이번 대회까지 통산 6차례나 패권을 차지하는 동안 남자대표팀은 금메달 하나에 그쳤기 때문이다. 1998년 나가노대회에서 처음 은메달을 따냈던 남자 5000m 계주는 토리노대회 금메달과 밴쿠버대회 은메달 이후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주인공은 '계주 전문' 박윤기(29·고양시청)다. 직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아깝게 놓쳤던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만행으로서 후배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다. 여기에 500m 3총사와 김도겸(25·스포츠토도)이 힘을 보태면 남자쇼트랙은 안방에서 모처럼 명예회복을 완성할 수 있다. 강릉 | 곽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최후의 3金 싸움이, 대진운도 '쾌청'

한국 쇼트트랙 조편성 집중분석

男 500·5000m 충분히 해볼만한 상대
女 1000m 최민정·심석희도 대진 무난

2018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은 22일 열리는 남자 500m와 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 종목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미 끝난 5개 종목에서 금메달 3개(남녀 1500m·여자 3000m 계주)와 동메달 1개(남녀 1000m)를 뺀 건 대표팀은 막판 스퍼트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세계의 금메달이 걸린 쇼트트랙 종목 마지막 날을 앞둔 한국 선수들의 조편성을 집중 분석했다.

● 남자 500m : 서이라 경합, 황대현·임효준 여류 남자 개인전 멤버인 황대현(19·부흥고)과 서이라(26·화성시청), 임효준(22·한국체대)은 20일

열린 500m 예선을 나란히 조 1위로 통과했다. 덕분에 1000m 준준결승 1조에 세 명이 함께 배정됐던 것과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출발선에 서는 황대현은 우다징(중국), 와타나베 게이타(일본), 로버츠 즈베니엑스(라트비아), 누베르겐 주마가지예프(카자흐스탄)과 2조에 편성됐다. 2017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 이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우다징을 제외한 세 명은 황대현과 견줘 기량이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다. 우다징은 20일 예선에서 40초26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올림픽 기록을 갈아치웠다.

준준결승 3조에 편성된 서이라는 3파전을 벌여야 한다. 이번 대회 1500m 우승자인 사무엘 지라드(캐나다), 중국의 강자 한티안위, 베테랑 사카즈메 로스케(일본)와 같은 조다. 스피드에 강점을 보이는 서이라 입장에선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며, 가장 안쪽(1번) 코

순위(중곡)를 제외한 라라 반 루이엔(네덜란드), 마그달레나 바라프스카(폴란드)는 가볍게 제칠 수 있는 상대다. 수잔 솔팅, 아라 반 케르코프(이상 네덜란드), 안드레아 케슬러(헝가리), 에카테리나 예프레멘코바(러시아)와 함께 4조에 편성된 심석희도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준결승행은 무난할 전망이다. 몸싸움에 능한 솔팅을 제외하면 적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 남자 5000m 계주, 피날레 장식하나

계주 멤버인 김도겸(25·스포츠토도)과 박윤기(29·고양시청)도 조용히 스케이팅날을 갈고 있다. 쇼트트랙 종목을 마지막 무대인 5000m 계주에서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다. 남자대표팀은 헝가리, 중국, 캐나다와 함께 결승에서 레이스를 펼치는데, 한국은 선수간의 기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강점이다. 13일 예선에서 보여준 특유의 조직력을 앞세워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 이후 12년만의 우승에 도전한다는 각오다. 강릉 | 강산 기자